

의사 확충은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원과

관련이 없습니다

오히려, 정부는 수도권 분원 설립이 지역의 병상과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

“다수의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방의료인력이
유출되어 지역 필수의료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.”

〈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보건복지부 브리핑('23.8.8) 발췌〉

**이에 지방의료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
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**

**이 대책은 종합병원(300병상 이상) 및
수도권 상급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
개설 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의무화
하고 있습니다.**

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에는
의료기관 개설 시작단계에서 시도의료기관 개설 위원회의
사전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

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
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
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<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보건복지부 브리핑('23.8.8) 발취>

정부는 지역별 적정한 수준의 병상을 공급하기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
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는
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